

시민 눈높이에서 행복 김제 만들기 '전진'

“사(私)를 버리고 공(公)을 위해 힘써 일한다는 극기봉공(克己奉公)의 자세로 언제나 시민만을 바라보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이 행복한 김제를 만들겠습니다.”

-정성주 김제시장 민선8기 1주년 기자회견 중-

정성주 김제시장은 민선8기 1주년에 즈음하여 시정의 주요성과와 새로운 김제 성공사대를 이룰 비전들을 발표했다.

먼저 그간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해주신 시민들과 성실하게 맡은바 업무를 수행해 온 공직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제시장으로서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쉽지가 않던 1년이었고 무엇보다도 시민들께 김제시민이라는 자부심을 드리고 한 1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리고 민선8기 1년동안 일궈낸 주요성과로, 2023년 국가예산 1조원 시대 개막에 이어 지난 5월 31일 기준 2024년 국가예산 중앙부처 단계 반영액 137,441억원과, 지난 3월 15일, 김제시주식회사 HR EXH-미국 MBC사간 건설장비 10억불(133,000억원) 수출 업무협약 체결과 5억불(6,500억원)의 수출 분계약 체결이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제시했다.

특히,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김제시 인구가 지난해 6월말 8만861명에서, 12월말 8만1,455명, 지난 5월말 8만1,889명 등 전년 6월말 대비 1,022명 증가 했다 이는 지난 1995년 시군 통합이래 처음있는 일이며,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해 인구가 증가한 시군은 김제시를 포함하여 전국에 단 11개뿐으로, 할 수 있다는 불굴의 의지로 김제형 인구정책에 지속적으로 집중한 결과 얻은 값진 결실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시도된 김제 꽃빛드림축제와 김제 문화의 날 행사는 신선하고 생동감 넘치는 기획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어우러져 축제의 새로운 발전가능성을 제시하였고

2023 전라북도 시·군 일자리정책 평가 2년 연속 최우수 한국메이커페스트 실천본부 민선8기 공약 평가 A등급 등 32개 분야에서 중앙부처 및 외부기관 표창을 수상하며 김제시의 위상을 한껏 드높였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지난 1년이 전북권 4대 도시로 응비하는 김제 실현을 위한 발판을 다지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그 발판 위에 새로운 김제 100년의 초석을 본격적으로 쌓아 올려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새만금과 8만 김제시민의 힘을 모아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김제 성공사대를 이룰 수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당부했다.

정 시장은 민선8기 1주년을 맞아 새로운 김제의 담대한 여정을 내실있게 추진할 핵심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들을 제시했다.

▲지속가능 산업성장도시

먼저, 대한민국 유일의 특장차 투자선도지구인 백구면 일원에 제2특장차 전문단지 조성, 김제시를 특장차 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고 2027년까지 지평선 제2일반산단지를 조성(1,712억원)하여 김제시 미래 경제성장의 동력을 창출해 나갈 예정이다.

혁신성장을 견인할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김제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증축, 순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요촌동·신봉지구·성산지구 도시재생사업과 금동지구 새마을사업 등으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어 나갈 계획이다.

▲활력있는 민생경제도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미래를 꿈꾸는 활력있는 경제도시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기업 유치의 인프라 구축과 지역경제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 할 김제상공회의소 설립을 추진한다

또한, 청년창업가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예비창업 도전지원사업, 청년창업 도약지원사업 등 성장단계별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및



정성주 김제시장이 지난달 28일 민선8기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시정의 주요 성과와 새로운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특장차 산업 메카 육성
지평선 제2일반산단 조성
미래 경제성장 동력 창출

지역경제발전 구심점
'김제상공회의소' 설립

초등 방과후학교 지원 등
학습하기 좋은 환경 조성
시장직속 어르신 섬김위 운영

김제축제재단 설립
축제 자생력 강화
문화예술 커뮤니티센터 건립
시민 문화 향유권 확대



충형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기업과 시민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취업박람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개최하여 관내 일자리 취업 알선, 맞춤형 정보제공 등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지속적인 경기 악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시설개선 및 경영 지원, 임차료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사업으로 서민경제 활력을 도모한다.

▲대한민국 최고 첨단농업도시

농업의 반도체라 불리는 종자산업을 신성장 핵심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김제공항부지 150ha에 종자생명산업 혁신클러스터를 조성(3,364억원)하고, 새만금 농생명용지 5공구(100ha) 일원에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를 구축(1,092억원)하여 첨단 농기계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한다.

첨단 농업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 미래농업의 핵심인 스마트 농업의 혁신성장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전라직물 직접지불사업 등 농업인의 기본소득 보장지원사업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청년농업인 선순환 체계 우수모델 선발 등 청년후계농 및 청년농업인의 자립기반을 지원함으로써 젊은 농업 농촌을 조성할 계획이다.

▲응비하는 힘만해양도시

새만금은 김제의 새로운 기회의 땅이다. 김제 새만금 신항만 민경공공부담부담금 동시도로 등 새만금 행정구역 관할결정에 대한 중앙부처조정위원회 심의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 김제 관할로 결정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미국 MEC사 등과 협약



시민마스크 수출



긴급 난방비 현장방문



문화의 날 행사

새만금에 국가 및 공공기관 유치는 수변도시 완공시기에 맞춰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등을 우선 유치하고 특히,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연계해 새만금(원형섬)에 한국마사회 분사 및 경마장등을 유치, 속도감 있는 내부개발을 추진해 해양도시의 미래를 열어간다.

아울러 김제 새만금신항이 스마트식품 월드 체인 및 그린수소 거점 항만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국가정책에 지속적으로 건의, 김제 새만금신항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함께하는 교육복지도시

지평선 나눔스쿨다 사업, 김제시 모두 배움터 조성사업, 지평선학당 운영,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아이들이 학습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배움으로 희망찬 미래를 그려 나갈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전국 제일의 어르신 행복도시 조성을 위해 시장직속 어르신 섬김위원회를 운영하고, 백세 장수어르신 축하금 지원사업, 어르신 섬김 으뜸마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어르신 복지정책과 경로효친 분위기를 확산해 어르신들의 안정된 삶의 기반을 조성한다.

아울러 분만취약지 분만취약인과 운영, 출산장려금 지원, 가족센터 건립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조성 등을 통해 임신부터 출산, 보육, 교육에 이르기까지 아이나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품격있는 문화관광도시

2027년까지 새만금권 전통 한옥문화 체험공간(197억원)을 조성해 국가정책에 부합하는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 한다는 계획이다.

김제축제재단을 설립해 축제의 질적 성장과 자생력을 강화하고 김제시투어버스 운영과 김제문화재야행을 통해 사계절 문화관광도시로 도약을 준비한다.

또한 공연·전시·체험 등 새로운 문화예술의 거점공간 역할을 수행할 문화예술 커뮤니티센터 건립과 문화의 날 운영 등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한다.

아울러 오는 9월 1일부터 3일간 개최하는 제 60회 전북도민체육대회는 차질없이 추진하고, 생활밀착형 국민체육복합센터 건립 등을 통해 김제시를 몸과 마음이 건강한 스포츠 활력도시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신뢰받는 시민소통행정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는 생각으로 읍면동 현장행정 추진과 신속한 생활민원 처리 등 시민중심의 서비스를 강화해 시민행복시대를 열고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듣기 위해 열린시장실, 시민 소통의 날 운영, 백년 김제 대시민 포럼 개최 등 시민과의 양방향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1년전 오늘 민선8기 김제시정이라는 두려움과 책임감 앞에서 시민의 뜻을 가슴깊이 새기며 시장으로서 책임과 소명을 다할 것을 엄숙히 약속했다”며, “우리 앞에 지금보다 더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놓여 있지만, 걱정과 두려움은 내려놓고 용기를 가지고 과감히 도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 시장은 “지금까지의 성과와 변화에 안주하지 않고 변함없는 담대한 의지로 지속 가능한 김제의 내일을 위해 변화의 씨앗을 뿌리고 희망을 키워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